

‘KT 윤경림號’ 닷 올리기 전 좌초위기… 2대 주주도 “반대”

현대차, 윤 후보 선임 반대 시사
국민연금도 반대표 행사 가능성

구현모 등 檢 배임 혐의 수사에
사외인사들도 잇따라 사의 표명
KT, 배임 의혹들에 “사실 무근”



KT 대표 최중후보 윤경림 사장

‘KT의 윤경림호’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강한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이 오는 31일 열리는 주총에서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최중 후보로 확정된 윤경림 사장(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윤 후보와 구현모 KT 대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외인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경림호가 제대로 안착하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한은행 주총서 반대표 던질까

현대차그룹이 KT 대표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견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4.69%)와 현대모비스(3.1%)는 KT의 지분 7.79%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

다. 현대차그룹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하면서 선정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신한은행 조차도 주총서 찬성표를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든 아니든 ‘기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인주주들이 윤 후보에 대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주총 결과는 현재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이버 카페인 ‘KT 주주모임’은 “정부 외압에 개인 주주들이 나서서 맞서겠다”며 세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모임 회원수는 2주 만에 벌써 1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국민연금이 KT의 주식 584만8081주를 대량으로 매도해 주가가

더욱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소액주주들은 오는 13일부터 가능한 전자투표에 의결권 행사를 해 주총 결과에 영향을 주려 하고 있다. 현재 KT의 소액주주는 57.36%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 카페를 통해 집계된 주식 수는 이제 1%를 넘긴 수준이라, 아직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검찰,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검찰은 윤경림 사장과 구현모 대표가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사장과 구 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사람들이 KT텔레캅의 일감시절 관리업체인 KDFS에 일감을 몰아줬으며 이사회 장악을 위해 사외이사들에게 부정한 향응을 제공했다는 고발에 대한 수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다. 또한 구 대표와 관련된 의혹에 현대차그룹 역시 연관이 돼 있다고 보고 수사대상에 현대차그룹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KT는 구 대표와 윤 후보에 대한 배

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KT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KT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KT텔레캅은 정당한 평가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량 몰아주기 여부는 현재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이고 당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T는 사육 시설관리, 미화, 경비·보안 등의 업무를 KT텔레캅에 위탁하고 있다. 또 “KT와 KT텔레캅은 외부 감사와 내부 통제(컴플라이언스)를 적용받는 기업으로 비자금 조성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윤 사장이 현대차-에어플러그 인수 이후 모종의 역할을 한 공을 인정받아 KT에 재입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에어플러그 인수 당시(2021년 7월) 윤 사장은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윤 사장 재입사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 대표가 현대차에 지급 보증을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외이사들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향

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검찰 수사가 압박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오히려 이날 임원회의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숨기려는 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KT의 5개 호텔 사업 적자가 300억 원에 달하는데도 일부 정치권과 결탁해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혹도 반박했다. KT는 “KT그룹이 운영하는 호텔은 4곳이고 호텔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연간 적자 300억 원을 기록한 바 없다”며 “외부 감사와 내부 통제를 적용받는 기업으로서 임의로 이익을 사외로 유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

한편 KT는 최근 주총 소집 공고 정정 신고를 통해 ‘윤경림 대표 후보는 대표이사로 선임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등 활동 내역’에 추가하는 등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는 ‘그들만의 리그’ 프레임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삼성SDS,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 공략 속도

국내 유일 CSP, MSP, SaaS 제공
고객 맞춤 클라우드 서비스 역량 보유

삼성SDS가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삼성SDS는 클라우드 전환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클라우드 기업이다.

삼성SDS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MSP), 삼성 엔터프라이즈 SaaS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기업 고객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SDS가 직접 개발한 ‘기업 맞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은 보안성·안전성·가용성 등을 요구하는 기업 고객의 니즈와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인원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MSP)’를 통해서도 삼성SDS가 30년 이상 IT서비스 컨설팅·전환·구축·운영을 통해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



삼성SDS 황성우 대표이사

/삼성SDS

으로, 컨설팅부터 앱 현대화까지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한다.

‘업무혁신을 위한 삼성 엔터프라이즈 SaaS’는 삼성SDS가 개발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자동화(Brity RPA), 협업(Brity Works), 모바일보안(EMM) 등 자사 대표 솔루션들을 뜻한다. 또 글로벌 솔루션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 공급망관리(Nexprime SCM), 인사관리(Nexprime HCM) 솔루션도 제공해 기업의 업무 혁신과 미래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현대화를 지원한다.

삼성SDS는 이러한 클라우드 역량과 30년 이상의 IT서비스 경험을 종합해 다양한 기업을 위한 맞춤 클라우드를 제공할 것이며, 브랜드 슬로건 ‘Cloud. Simply Fit’을 함께 발표했다.

황성우 삼성SDS 대표이사(사장)는 “삼성SDS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CSP, MSP, SaaS를 함께 제공하는 기술력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미래 성장에 필수적인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정보유출·접속오류 피해보상 논의 본격화

LG유플러스, 피해지원협의체 구성
사례 분석 후 유형별 지원기준 마련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및 인터넷 접속오류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지원 논의를 본격화한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및 인터넷 접속오류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9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LG유플러스가 지난 2월 발표한 ‘종합 피해지원안’ 마련의 일환이다.

이번에 발족한 ‘피해지원협의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PC인터넷가페협동조합 등 고객을 대표하는 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의 외부 전문가 총 6명과 LG유플러스 관련 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개인정보유출과 인터넷접

속오류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반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객별 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날 회의에서는 LG유플러스가 지난 2월 16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지원센터’의 고객의 피해 접수 현황을 소개하고 보상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3월 7일 기준 LG유플러스 ‘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인터넷접속오류 피해사례는 2284건이다.

서울YMCA시민중계실 한석현 실장은 “그동안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이러한 자리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LG유플러스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가치가 올라가는 데 초점을 맞춰 다양한 관점에서 피해 지원 방안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MS, 애저 오픈 AI서비스에 챗GPT 추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오픈 AI서비스에 챗 GPT 프리뷰를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애저 오픈 AI 서비스는 오픈 AI의 최신 AI 시스템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지난 1월 공식 출시됐다. 현재 1,000곳 이상의 조직이 이 서비스를 활

용하고 있다.

이번 발표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고객은 GPT-3.5, 코덱스(Codex), 달리 2(DALL·E 2) 등 가장 진보한 AI 모델과 애저 슈퍼컴퓨팅 기반 대규모 언어 모델에 이어 챗 GPT 기술도 보안, 컴플라이언스, 책임 있는 AI 등 애저가 제

공하는 엔터프라이즈급 기능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자들은 애저상의 챗 GPT를 활용, AI 기반 경험을 손쉽게 커스터마이징하고 이를 애플리케이션(앱)에 적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봇 개선, 콜센터 대화 요약, 개인 맞춤형 제안 등을 담은 신규 광고 캠페인 생성, 자동 클레임 처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가능하다.

/최빛나 기자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 대작

카카오게임즈는 엑스엘게임즈가 개발 중인 대작 MMORPG ‘아키에이지 워’의 사전 예약자 수가 200만 명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아키에이지 워’는 지난 1월 16일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5일 만에 예약자 100만 명을 모집한 데 이어, 오는 3월 21일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자 200만 명을 달성해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아키에이지 워’는 원작 ‘아키에이



지’의 IP를 활용한 PC/모바일 크로스 플랫폼 MMORPG로, 원작 대비 짙어진 전쟁과 전투 요소가 특징이다.